나혜석의 『구미여행기』와 새로운 글쓰기

아영희*·정혜영**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Ⅱ 나혜석에 편중된 신여성 연구와 그 의미
- Ⅲ 나혜석과 요사노 아키코, 식민지의 신여성과 제국의 신여성
- Ⅳ 사실의 기록과 사생의 기법,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 V 나오는 말

【국문초록】

남존여비의 유교이데올로기와 '文'의 의식이 여전히 강했던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신여성들은 극심한 편견, 비난 속에서 나혜석은 남성과 동등한 한 사람의 작가로서 혹은 화가로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구축해갔다. 이 과정에 대한세밀한 고찰은 한 편으로는 식민지 시기 조선 신여성의 의식의 실체와 식민지조선이 경험한 근대의 실체를 밝혀가는 것이면서 또 한 편으로는 한 인간이 어떻게 편견과 무지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가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신여성 요사노 아키코(擧謝野晶子)의 파리 체험에 대한 비교 고찰은 필수적이다. 나혜석과 요사노 아키코는 제각각 조선과 일본 신여성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작가로서 다수 작품을 발표하였고 두사람 모두 당시 신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파리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이외 본 연구에서 조선 신여성 나혜석의 의식을 고찰하기 위해 요사노 아키코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나혜석이

^{*} 주저자 및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조교수

^{**} 공동저자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초빙교수

자신의 글에서 논문과 시 창작에 매진했던 요사노 아키코를 자신의 롤 모델로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나혜석의 『구미여행기』를 중심으로 나혜석으로 상징되는 조선 신여성의 의식의 제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주제어: 신여성, 식민지, 제국, 나혜석, 요사노 아키코, 『구미여행기』

1.들어가는 말

100여 년 전 한국은 글로벌했다. 유라시아 철도로 동서양이 연결됐고 그 철도의 출발지는 부산이었다. 이 철도를 통하여 러시아 혁명의 낭만적 열정과 벨에포크 시기 파리의 화려한 문화가 한국에도 전파되었다. 그런 유입에 휩쓸려 역동의 시대가 찾아왔고,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파멸에 이르렀지만, 그 열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를 산것이다. 조선 최초로 유라시아 열차에 몸을 실었던 나혜석은 그중 한사람이었다. 나혜석이 뿜어낸 열정의 흔적을 더듬는 것은 근대라는 한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간 식민지 조선인의 의식을 고찰하는 것이기도하다.

나혜석은 유교적 보수성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던 1896년 조선에서 태어난다. 이후 그녀는 조선을 대표하는 신여성이자, 조선근 대문학,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혀간 인물이다. 그러나 모든 조선의 신여성들이 그랬듯 그녀 역시 식민지 조선의 보수성으로 인해 몰락을 거듭하는 인생을 산다. 근대조선에서 신여성들

의 발목을 잡은 것은 조선의 보수적 유교 이데올로기만이 아니었다. '식 민지'라는 조선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역시 그에 못지않은 큰 문제였다. '식민지'라는 조선의 정치적 상황은 필연적으로 '전근대'라는 사회무화 적 상황을 동반하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특히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신청년들은 대부분 그 열망을 채울 지식을 조 선에 앞서 근대성을 확보한 일본제국을 통해서 얻었다. 여성 역시 여기 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남성에게도 쉽게 주어지지 않았던 '일본 유학'이 라는 어려운 기회를 잡기 위해 조선의 여성들은 부단히 노력했다.

일본 유학을 택한 조선 지식인 대부분이 제국과 식민지, 근대와 전근 대 간의 간극에 발을 헛디디고는 휘청대면서 근대 조선 건설을 향해 나 아갔다. 여기에서 여성들은 근대와 전근대. 제국과 식민지라는 간극에 더하여 조선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위치의 가극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조선 신여성들은 일본 신여성들에 비하여 훨 씬 더 극심한 사회적 한계를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다한 긍정은 물론, 그렇다고 과 다한 부정도 없이. 객관적 시선을 가지고 열악한 사회문화적 현실 속에 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조선 신여성의 강렬한 의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페미니즘의 과다한 선호로 인해서, 혹은 남성 중심 적 근대문화의 편견으로 인해서 과대포장 되거나 혹은 평가절하되었던 근대 신여성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시켜줄 수 있을 것이. 다. 아울러 근대 신여성 삶의 객관적 복원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이 근 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직면했던 다양한 한계와 현실 역시 정확하게 포 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근대에 관한 고통스 러운 '사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는 우리의 근 대의 실체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그 실체를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식민지의 어두운 기억에서 벗어나 '근대'의 문을 열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의 한 방안으로서 식민지 시기 조선의 대표적 신여성이었던 나혜석의 문학과 삶을 그녀의 구미 여행 경험을 통해서 고찰해보려고 한다.

Ⅱ. 나혜석에 편중된 신여성 연구와 그 의미

한국에서 신여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혜실의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나』(2000)에서 시작해서, 조선 신여성의 의식과 문학의 문제를 한일 비교연구를 통해서 고찰한 『신여성』(2003), 조선 신여성의 의식과 삶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신여성, 근대의 과잉』(2009), 신여성 관련 담론을 분석한 『그들의 이야기. 신여성』(2011),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 신여성의 복합구성과 실체를 밝힌 『신여성, 개념과 역사』(2016) 등 다수의 연구서가 출판되었다. 이외에도 1920년대 발행된 잡지『신여성』을 분석한 『신여성: 매체로 본 근대여성풍속사』등이 있다. 이외 개별 연구는 상당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인물 관련 연구의 상당수가 나혜석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나혜석의 경우, <나혜석 연구회>까지 결성되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그 연구는 나혜석의 연애문제, 부부 문제를 조명한 것

¹⁾ 나혜석과 관련해서는 이상경이 『나혜석 전집』 발간을 비롯해, 새로운 자료 발굴 (「새로 찾은 나혜석의 글」 『나혜석 연구』 5, 2014), 삶의 궤적에 대한 치밀한 접 근(「기억과 기록 사이에서 나혜석 말하기」, 『나혜석 연구』 9, 2016) 등 연구를 지

에서부터, 나혜석의 만주체험, 나혜석의 미술과 문학의 연관 관계, 그 리고 나혜석의 일본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나혜 석과 일본' 현지답사보고서』(2013)는 나혜석의 일본 유학 경험을 다루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나혜석의 연인 최승구가 다닌 게이오대학을 방 문하고, 학적부를 조사하는가 하면, 교토 시절의 나혜석과 김우영, 그 리고 나혜석이 다닌 일본의 여자 사립미술학교와 관련한 조사를 다루 고 있다.

나혜석 편중 연구는 나혜석과 함께 조선 신여성 1기를 연 김명순, 김 일엽(김원주) 연구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그 한계는 기본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유학 관련 자료에서부터 발견된다. 나혜석과 김명순. 김원주 세 사람은 모두 1896년생으로 일본 유학, 그것도 동경 유학이라 는 공통경험을 지니고 있다. 나혜석이 1913년 일본사립여자미술학교. 김명순 역시 1913년 고지마치(麴町)여학교, 김원주가 이들보다 다소 늦 은 1919년 도쿄 에이와(英和)학교로 유학을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그러나 나혜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자료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3)

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2) 『}김명순 전집』(현대문학사, 2009)과 『김일엽 선집』(현대문학사, 2012), 『나혜석 전 집』(태학사, 2000)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³⁾ 예를 들어 긲명순 경우 1913년 고지마치여학교(麴町女學校)로 1차 유학을 간 후, 1915년 귀국, 1919년 2차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김명순과 관 련한 여러 자료 중, 고지마치여학교(麴町女學校)를 명시한 자료는 한 종류밖에 없 었을 뿐 아니라 2차 일본 유학 시 학교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몇몇 자료에서 도쿄여자전문학교(東京女子專門學校)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1919년 김명순 유학 시 일본 내에 도쿄여자전문학교(東京女子專門學校)라는 이름의 학교는 없었 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일엽 역시 모든 관련 자료에서 '도쿄에이와학교(東京英和 學校) 수료'로 명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김일엽이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나혜석 편중 현상은 왜 일어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일단 나혜석이라는 인물의 화제성이 거론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제성이라는 용어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단 첩의 딸이었던 김명순이나 교원의 딸이었던 김일엽과 달리 나혜석은 수원지방의 대지주이자양반가문의 딸, 즉 조선 지배층의 후손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거론할 수있다. 4) 이 신분적 특성은 나혜석과 더불어 신여성 1기를 이룬 김명순, 김일엽에 비해서 나혜석이 당대 남성 문인이나 언론의 비난에서 상당부분 안전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이와 같은 신분적 특성은 그녀에 대한 대중적 관심, 그다지 긍정적이지않은 화제성을 높이는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적 의미에서의 화제성 근거로서는 나혜석이 한국근대문학사, 한국근대미술사 양 측에 모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는 점을거론할 수 있다. 제국미술전람회 즉, '제전(帝展)'과 조선미술전람회 즉 '선전(鮮展)'에서 모두 입상한 나혜석의 경력은 조선 여성으로 최초였

유학을 떠난 1919년 도쿄에 '도쿄에이와학교(東京英和學校)'란 이름의 학교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도쿄 에이와학교'의 경우, 일본 유명 사립학교인 아오아마학원(靑山學院)의 전신으로 1894년 지금의 아오아마학원(靑山學院)으로 명칭을 바꾸고 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⁴⁾ 나혜석의 아버지 나기정(羅基貞)은 1906年 10月 경기관찰도 주사를 시작으로 관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한일합방 당해인 1910년 3월 경기도 시흥군수에, 1912년 10월 용인군수에 임명된 후 1914年 관직에서 물러났다(安龍植,『韓國行政史研究1』, 大永文化史, 1993, p.163). 또한, 나혜석 조카 나영균은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을 參判宅 아니면 羅富者宅이라고불렀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富者였는지는 알 수 없다. <…> 다만 아버지 追憶談에의하면 水原에서 분천까지는 남의 땅을 안 밟고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羅英均, 『日帝時代 우리 家族은』, 황소자리, 2004, p.22.

을 뿐 아니라 일반 조선 남자를 고려했을 때도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혜석이 이른 시기 발표한 단편소설 「경희」는 객관적 묘사, 소 설적 구도의 측면에서 이광수나. 김동인을 능가할 정도였다. 여기에 더 하여 나혜석이 미국 유학도 신문에 날 정도로 드물었던 당시 조선 사회 에서 조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세계일주여행을 한 것이 또 하나의 중 요한 화제성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나혜석의 화제성을 고려 하면서 본 연구는 나혜석에 대한 다수 단행본이 지닌 문제점을 정확하 게 인식한 후, 나혜석의 삶과 예술의 토대가 된 구미여행 경험을 집중적 으로 분석해서 그로부터 나혜석 삶과 문학 전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식민지 시기 조선 신여성들이 문화예술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근대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문인 혹은 화가로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간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존여비의 유교 이데올로기와 '文'의 의식이 여전히 강했던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신여성에 대한 극심한 편견, 비난 속에서 나혜석은 남성 과 동등한 한 사람의 작가로서 혹은 화가로서 자기 삶의 영역을 구축해 갔다. 이 과정에 대한 세밀한 고찰은 한 편으로는 식민지 시기 조선 신 여성의 의식의 실체와 식민지 조선이 경험한 근대의 실체를 밝혀가는 것이면서 또 한 편으로는 한 인간이 어떻게 편견과 무지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해 가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일 본 신여성 요사노 아키코(擧謝腎晶子)의 파리 체험에 대한 비교 고찰은 필수적이다. 나혜석과 요사노 아키코는 제각각 조선과 일본 신여성 1세 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작가로서 다수 작품을 발표하였고 두 사람 모 두 당시 신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파리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 은 공통점 이외 본 연구에서 조선 신여성 나혜석의 의식을 고찰하기 위

해 요사노 아키코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나혜석이 자신의 글에서 논문과 시 창작에 매진했던 요사노 아키코를 자신의 롤모델로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구미 각국 부인들의 활동을 보든지 또 제일 가까운 일본에도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는 십여 인의 모(母)로서 매삭 논문과 시가 창작으로부터 그의 독서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아니 하려니까 그렇지, 다 같은 사람 다 같은 여자로 하필 그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으라' 싶은 마음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잘 생각한 것 같았다.5)

이처럼 나혜석은 명민하고 감수성 강했던 시기 일본을 통해 서구의 새로운 문물과 마주하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의 중심에 요사노 아키코로 상징되는 다이쇼 시기 일본의 문화적 흐름이 있었다. 나혜석은 '모성'과 더불어, 유럽 여행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요사노 아키코, 넓게는 다이쇼 시기 일본문화와 자신의 삶을 연결해 갔다. 나혜석과 요사노 아키코 간의 모성이데올로기의 연관성에 관한연구가 나올 정도로, 두 사람 간의 영향 관계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653세로 삶을 마감한 길지 않은 인생에서 일본 유학 시기에서 구미 일주여행에 이르는 그 기간은 나혜석 인생의 최고 절정기였다.7) 나혜석의 삶은 오 년간의 일본 유학과 1년간의 파리 체류를 벗어나서는 설명할

⁵⁾ 나혜석, 「母된 감상기」, 앞의 책, p.219.

⁶⁾ 송명희의 「나혜석과 요사노 아키코의 모성이데올로기 비판과 여성적 글쓰기」는 (『인문사회과학연구』 17, 2016), 나혜석의 모성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점을 요사노 아키코와의 영향 관계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⁷⁾ 나혜석은 1935년에 파리여행 시기를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 그때가 좋았었지요, 그래요, 나도 그때가 제일 좋았어. 그때처럼 모든 조건과 기분이 자유스러웠을 때는 없었어." (「파리의 그 여자」 중. 1935년 11월).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시기는 나혜석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혜석은 일본 유학에서 조선으로 귀국하여 결혼하고 가 정을 이루어 살면서도 나혜석은 '일본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적 으로 내뱉고 있으며 이혼 후.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구미여행기』를 집 필한다.8) 그녀가 가고 싶어 했던 일본, 그리고 꿈같았던 세계일주여행 과 파리 체류9) 이 양자 모두 요사노 아키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 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나혜석과 요사노 아키코의 파리기행문의 비 교부석을 통해서 나혜석의 의식의 지향점과 그 하계를 고찰해보고자 하다

III. 나혜석과 요사노 아키코, 식민지의 신여성과 제국의 신여성

나혜석이 일본 유학을 위해 도쿄에 도착한 것은 1913년이었다. 나혜 석의 나이 열일곱 살이었다. 나혜석이 도착하기 일 년 전인 1912년 7월 메이지 천황이 죽으면서 일본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기 가로 등이 도입되어 도쿄의 밤거리는 화려하게 빛났으며, 전기관 등 서양 영

⁸⁾ 나혜석과 김우영의 이혼은 1930년 11월 20일 김우영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에 따 라 이혼이 성립된다. 나혜석은 이혼 후. 1932년 1월 『삼천리』에 「아아 자유의 파리 가 그리워,를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구미여행 기억과 관련한 글을 지속적으로 발 표하다.

⁹⁾ 나혜석은 이혼 이후인 1935년 『삼천리』에 게재한 수필 『신생활에 들면서』에서 절 망과 좌절감. 분노를 함께 쏟아내고 있다. 이 글 중. 「어디로 갈까,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나혜석은 최린 제소 사건을 가리키는 "이번 사건 이후 면목을 들고 사설 수가 없으니"라면서, "파리로 가자"고 쓰고 있다.(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앞의 책. p.437)에서 참조

화 관람관이 있는 유원지, 아사쿠사의 극장에서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비롯해서 톨스토이의 『부활』 등 다양한 서양 근대번역극이 밤새워 공연되고 있었다. 특히 『부활』을 연출한 와세다대학교 교수이자 유명 극작가였던 유부남 시마무라 호케츠와 여배우 마쓰이 스마코의 센세이셔널한 연애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신여자들이 여성의 권익을 주창하고 있었다. 신여자 중심의 잡지 『세이토(靑鞜)』에는 「여성의 사상의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비롯하여 「反양처현모주의적 부인론」과 같은 급진적 논설이 게재되고 있었다. 보수적이고 낙후된 조선 땅을 막 벗어난 열일곱 살의감수성 강한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도 감성적인 세계가는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일본문화의 주인공 중 한사람이 바로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이다. 요사노 아키코는 일본 와카 시인으로 히라쓰카 라이초 등과 함께 일본 최초의 신여성 잡지 『세이토』의 발행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녀는 일본 신여성 1세대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당시 일본의 가인이었던 유부남 요사노 뎃칸과의 불륜의사랑으로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은 인물이다. 여성의 연애감정을 솔직하게 노래하여 출판 당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시집 「흐트러진 머리카락」(1901)은 이와 같은 요사노 아키코의 자유로운 성향을 대변한다. 시집 중 하나를 골라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이란 짧으니. 사랑을 해, 소녀여/맑디 많은 그 입술, 바래기 전에/타오르는 그 열정, 식어버리기 전에/내일이란 시간은 없는 것이니.../인생이란짧으니. 사랑을 해, 소녀여/손을 잡으렴, 어서. 그 배 안에서.../불타오르는볼을, 어서 그이의 볼에.../거기에는 누구도 올리 없으니.../인생은 짧아. 사랑을 해, 소녀여/검은 머리 하얗게, 물들기 전에/마음 속 불꽃 식어, 꺼지기전에/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10)

조선으로 돌아와서도 요사노 아키코를 입에 올린 것을 보면 열일곱 의 나혜석이 일본 신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요사노 아키코의 이 감 성적인 시집을 읽은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이란 짧으니 사 랑을 하라"고 속삭이는 요사노 아키코의 달콤한 시가 열일곱 살의 예민 하고 감수성 가득한 조선 소녀에게 불러일으킨 열정이 얼마나 컸을지 는 충분히 상상이 간다. 특히나 요사노 아키코는 불류이었다고는 하지 만 요사노 뎃칸과의 사랑에 삶을 건 낭만적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나 혜석이 일본에 도착한 바로 일 년 전, 요사노 아키코는 일본 여성으로서 는 최초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남편 요사노 뎃칸(与謝野鐵幹)을 만나기 위해 파리로 건너가서 남편과 함께 유럽 여러 곳을 여행하고 돌 아온다.11) 그리고 나혜석이 일본에 도착한 바로 그다음 해 요사노 아키 코는 남편과 공동이름으로 파리여행 기록을 담은 기행문 『파리에서』 (1914)를 출판한다.

나혜석은 요사노 아키코가 남편과의 유럽여행으로 일본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던 바로 그 무렵 일본에 있으면서. 그 광경을 생생하게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나혜석이 시댁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네 명의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남편 김우영의 파리행에 굳이 동참 했던 것에는 미술가로서의 열정과 더불어 선망의 대상이었던 요사노 아키코의 파리여행과 기행문 『파리에서』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울 듯

¹⁰⁾ 요사노 아키코 박지영 옮김, 「흐트러진 머리카락」,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p.40.

¹¹⁾ 요사노 아키코의 파리여행은 당대 일본에서 큰 이슈였다. 일단 요사노 아키코 출발 당일인 5월 5일 요미우리 신문이 「신여자」의 연재를 개시한 후, 제1회로 요사노 아키코의 파리행을 게재하고 그다음 날에는 요사노 아키코의 출발 모습을 기사화 한다. 기사에 따르면 출발 배응을 하기 위해서 히라쓰카 라이쵸 등 모두 500여 명 이 모였다고 한다.

하다. 그러나 파리여행 준비과정에서 포착되는 나혜석과 요사노 아키코 간의 차이는 조선의 보수적 환경 속에서 '여성의 자립'을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조선 신여성의 의식과 전근대적 조선 상황의 한계를 보 여준다.

일단 요사노 아키코의 파리행은 파리에 머물고 있던 남편 요사노 뎃 칸12)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실제로 4개월간의 파리여행 결행과 관련한 모든 처리는 요사노 아키코의 몫이었다. 7명이나 되는 아이를 맡길 곳을 찾고, 그 아이들이 4개월간 지낼 생활비, 여행비를 마련하는 것은 요사노 아키코가 해결해야 할문제였다. 소설가 모리 오가이의 주선으로 미쓰코시 백화점의 후원을받고13), 신문 및 잡지에 다수의 와카를 싣는 조건으로 나머지 경비를마련한다. 이로 인해 예술문화로서의 와카를 상품으로 판 행위에 대한국심한 사회문화적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가능한 돈을 절약하기위해서 배 대신, 시베리아 철도여행을 선택하였으며 여행 과정에서도모닝 빵과 커피 한 잔으로 이틀을 견디는가 하면14)여행 중 갑자기 돈이떨어져서 일본 영사관을 통해 지인에게 연락해서 돈을 조달받기도 한다. 요사노 아키코는 『파리에서』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여행을 다음과

¹²⁾ 요사노 뎃칸은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및 우파인물들과 함께 명성황후시 해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미우라 고로 등과 함께 히로시마로 보내어져서 투옥되어 재판을 받지만 사건 당시 경성에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어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外務省外交史料館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의『新版 日本外交史辭典』(1992)872쪽과 983쪽 참조)

¹³⁾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金子幸代의 『鷗外と「女性」』(大東出版社、1992, p.295) 을 참조했음.

¹⁴⁾ 奥謝野寬, 與謝野晶子,「巴里より」, 青空文庫, https://www.aozora.gr.jp/cards/000320/files/2168_42800.html에서 참조(2019. 7. 20.)

같이 기록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수요일의 열차는 하나의 화물열차와 식당, 세 개의 객실열차로 되어 있다. 내가 탄 것은 마지막 카에 있는 열차로 두 사 람이 들어가는 끝 방이어서 폭은 오 척이 못된다. 같은 방을 사용하는 승객 은 없다. 유리창이 두 개 있다.15)

요사노 아키코가 탄 기차는 폭이 오 척이 못되는 좁은 곳에 두 사람 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이 좁은 기차에서 그녀는 파리에 도착하기까 지의 2주가의 여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행경비에서부터 가 족 생활비, 아이들 위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남편 도움 없이 요사 노 아키코 혼자서 처리한 것이다. 요사노 아키코를 포함한 일본 제1기 신여자 그룹이 주창한 '여성의 사상의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몸소 실현 해 보인 것이다. 그 일정을 잠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12. 5. 5. 오후 6시 도쿄 신바시역 출발(일요일) 쓰루가 도착 러시아 상선 '아리욜 호' 탑승
- 1912. 5. 8.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 1912. 5. 8.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탑승 부스리스크 하얼빈 러시아령 이르 쿠츠크 - 키로프
- 1912. 5. 14. 우랄산맥
- 1912. 5. 17. 모스크바 조선인 박 씨의 안내로 모스크바 관광
- 1912. 5. 18. 바르샤바에서 환승
- 1912. 5. 19. 남프랑스 마르세유 도착16)

¹⁵⁾ 與謝野晶子, 『巴里まで』, 青空文庫(인터넷도서관)

¹⁶⁾ 요사노 아키코는 갖은 고생 끝에 파리에 도착, 남편과 함께 4개월에 걸쳐서 유럽 여러 곳을 여행한 후 9월 21일 마르세이유항에서 일본화물 여객선 「히라노마루(平

요사노 아키코의 여행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남편과함께 1년 반이나 되는 장기간 외유를 하면서 돈 2만여 원의 거금을 모두 쓴 나혜석의 여행은 상당히 호화로운 것이었다. 나혜석의 경우, 교토제대 출신의 외교관인 남편의 정치적 입지 및 사회적 명성에, 조선 최초의 신여자에 여류화가, 여류작가라는 자신의 명성까지 더해져서 부산에서 출발하여 파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환송회가 개최된다. 그리고파리 도착 이후에도 '이왕 전하'를 만나는가 하면, 사이토 총독이 이왕전하를 위해 내외 여빈을 모두 초대하여 주최하는 만찬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여행 준비과정에서는 물론, 여정 어디에도 요사노 아키코가 겪은 궁핍함과 절박함은 없다. 궁핍하기는커녕 나혜석의 파리행은 일반사람들이 여행 과정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일종의 상류층 외유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행 과정에서 누린 이 경험, 단적으로 말해서 매일, 매일 축제와 같았던 이 경험이 어쩌면 최린을 향한 낭만적 열정으로 이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건 파리행에서도 나타나듯 나혜석의 삶은 그녀가 태어난 그 순 가부터 찬탄과 존중에 의해 채워지고 있었다. 물론 전근대적이며, 보수

野丸)」에 승선하여 일본으로 돌아온다. 전체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⁵월 19일~6월 20일까지 파리 체재

⁶월 23일~7월 4일까지 영국 체재

⁷월 8일~10일경까지 벨기에 체재

⁷월 13일 프랑스에 돌아옴

⁹월 1일~12일경까지 독일 체재

⁹월 12일~14일경까지 빈 방문

⁹월 15일~16일경까지 네덜란드 방문

⁹월 17일 파리에 돌아옴

⁹월 20일 마르세이유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다.

⁽¹⁰월 28일 일본 도착)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與謝野晶子, 『巴里まで』를 참조 (新文芸讀本, 1914, p.98)

적 조선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몫이 분명히 있기는 했지 만, 그 몫이라는 것이 여타 여성들에 비해 과다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17) 그래서인지 나혜석에게서는 이런 삶에서 결과된 극도의 자 기중심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결혼 직후 시어머니와 의 동거라든가 임신 등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남 편을 채근하여 2달간의 도쿄 휴가를 얻어내는데 이는 당시 조선 여자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18) 이와 같은 나혜석의 자기중심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구미여행 이후의 사소한 상황을 묘사한 다음 의 구절이다.

내가 구미 만유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친척 친구들에게 토산물을 다 소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며 그 외 근친에게는 사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방심하였다는 것보다 그들에게 적 당한 물건이 없었던 것이외다. 본국에 와서 사드리려고 한 것이 흐지부지 한 것이외다. 프랑스에서 오는 짐 두 짝이 모두 포스터와 회(繪)엽서와 레 코드와 화구뿐인 것을 볼 때 그들은 섭섭히 여기고 비웃은 것이외다.19)

나혜석의 인생의 비극은 삶과 기질의 결합에서 생성된 이와 같은 극 도의 자기중심성 역시 큰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자기중심성. 달리 말하면 상황에 자기를 맞추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우선시하는 이 독특한 기질은 예

¹⁷⁾ 나는 결코 가사를 범연히 하고 그림을 그려온 일은 없었습니다. 내 몸에 비단옷을 입어본 일이 없었고 1분이라도 놀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제일 귀중 한 것이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18) &}quot;2달간 도쿄에 다시 보내주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방책이 없다"고 한 것으로 기록 하고 있다.(나혜석, 「母된 감상기」, 『나혜석 전집』(앞의 책), p.207.

¹⁹⁾ 나혜석, 「이혼고백장」, 『나혜석전집」(앞의 책), 404-405쪽,

술가 나혜석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할 수 있다. 그 자질이 빛을 발휘한 것이 바로 파리에 이르기까지의 여행기록이다. 돈의 문제, 언어문제에 얽매여 주눅이 들어서 주변 풍경을인지할 여유가 없었던 요사노 아키코와 달리, 나혜석은 기차가 지나가는 곳곳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포착해낸다. 나혜석의 이와 같은 현실 포착능력, 포착한 현실을 언어화시키는 나혜석의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것일까. 여기에는 당시 시대적 현실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던 식민지지식인으로서의 나혜석의 상황이 일단은 거론될 수 있다. 나혜석은 삼일운동에 관여해서 투옥되어 옥고를 치를 정도로 강렬한 민족의식,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이 나혜석이 일본여자사립미술학교에 유학하여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생(寫生)' 기법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다는 점이다.20)

실제로 나혜석은 논설에서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네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 네 번째로 '그림, 즉 데생'을 거론한 후 "데생은 윤곽만의 의미가 아니라, 칼라 즉 색채, 하모니 즉 조화를 겸용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²¹⁾ 선전(鮮展) 특선작「天候宮」제작과정과 관련한기억을 적은「미전출품제작 중에」에는 '실물 사생'을 중시하는 나혜석

²⁰⁾ 학교 밖에서의 풍경 사생이라는 하는 행위가 상당히 드물 때여서, "회상을 어깨에 삼각의자, 삼각대를 허리에 안고 사생용 양산(파라솔), 캔버스를 끌어안고 나가소 데에 게다를 신고" 걷는 서양화과 학생의 모습은 길을 걷는 사람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이 당시 사립여자미술학교의 경우, 1916년까지 "天然自然을 대한 때에도 자신이 典範으로 하고 있던 그림의 필법에 의해서 그것을 포착해서 그리는 구래의 방법"인 '임화(臨畵)'가 정규적 커리큘럼에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중시된 것은 '實物, 實地의 사생'이었다(女子私立美術大學歷史資料室,『女子美術教育と日本の 近代』, 學校法人私立美術大學, pp.115-116).

²¹⁾ 나혜석, 「이혼고백장」, 앞의 책, p.403.

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제2로 困難했던 것은 사생(寫生)하던 處所가 공교히 나무 파는 市長이 되어서 나무가 팔릴 때까지 멍하니 앉아있던 中國쿠리들은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앞뒤로 數十名이 둘러싸고 뒤에서는 밀고 6척이나 되는 큰 키 들이 앞을 막아서면 일일이 악을 써서 "니야"를 부른다.(조선인을 '요보'라 고 부르는 일반으로), 그러면 깜짝 놀라 비켜서는 이도 있고 끈적끈적한 몸을 탁 버티고 섰다. 그러면 나도 화가 나서 서투른 청어(淸語)로 "점어 니부지더마 오부능 카카 제벤(내가 저기를 볼 수 없는 것을 왜 너는 모르 느냐)"하고 악을 쓴다. …생략(인용자)… 하여간 이렇게 아침 8시부터 12시 까지의 光線으로 4일간을 연하여 다니는 동안에 온갖 우스운 일이 다 많 았다.22)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실물 사생의 훈련이 구미여행기의 글쓰기와 어 떻게 연결되는 것이며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 포착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Ⅳ. 사실의 기록과 사생의 기법,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나혜석은 1927년 6월 19일 1년 8개월 일정의 구주여행 길에 오른다. 조선총독부 안동현 부영사로 재직 중이던 남편이 일본 천황의 포상을 받아서 이루어진 여행이었다.23) 여기에 나혜석이 동행한 것이었다. 거

²²⁾ 나혜석, 미전출품제작 중에, 『조선일보』, 1926.5, pp.20-23.

²³⁾ 나혜석의 「이혼고백장」에 따르면 이 旅行은 7년여에 걸친 기간, 만주 안동현 부영 사로 충실하게 재직했던 김우영의 노고를 치하하여 일본 외무성에서 제공한 것으 로 여기에 나혜석이 아내 자격으로 동행한 것이었다. 1년 8개월이라는 긴 기간과

액이 소요되는 여행경비, 세 명의 아이 등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나혜석은 결국 여행을 감행한다. 오전 11시 부산역에서 봉천행 기차를 타는 것으로 여행은 시작된다. 나혜석은 이 여행기록을 1930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구미시찰기」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잡지 『삼천리』에 『구미여행기』라는 제목으로 1932년 12월부터 1935년 2월까지 연재했다. 나혜석의 이 기록24)을 중심으로 여행 일정 및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27. 6. 19. 오전 11시 부산출발(봉천행)
- 1927. 6. 19. 오후 1시 대구 도착. 친지들 만남. 저녁 11시 대구 출발
- 1927. 6. 20. 새벽 4시 경성 도착
- 1927. 6. 22. 저녁 11시 경성 출발
- 1927. 6. 22~26. 안동현에 머무름. 저녁 11시 30분 봉천 출발. 조선인회의 화영을 받음.
- 1927. 6. 27. 봉천에 저녁 7시 도착. (오빠 나경석 집에서 휴식)
- 1927. 7. 6. 하얼빈에서 저녁 8십 10분. 동지철도(1등실) 러시아와 중국 국 경 만주리로 출발.
- 1927. 7. 7. 만주리 도착. 오후 3시 시베리아를 달려서 흥안령 넘음. 해발 수천 척. 저녁 8시. 러시아와 중국 국경인 만주리 도착.
- 1927. 7. 7. 저녁 11시. 만주리 출발. 와고니 회사 만국 침대차에 환승 (1등실).
- 1927. 7. 7.~7. 13 만주리에서 여권 검사 후 기차는 소비에트 연방 영역. 광야를 거쳐 - 칼부이스카 역 - 치타 역 도착 - 치타역 - 우엘 네우진스크 - 바이칼호 - 그라스노야스크 - 타이가 - 옴스크 -스베르들로프스크

²만 원의 거금이 소요된 여행이었다.

^{24) 「}구미시찰기」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 「구미여행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여행기를 함께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1927. 7. 13. 모스크바 도착

1927. 7. 16. 오후 5시 모스크바 출발.

1927. 7. 17. 오후 6시 바르샤바 도착. 오후 8시 파리행 열차에 환승

1927. 7. 18. 오전 9시 베를린 통과

1927. 7. 19. 오전 파리 갸르 드 누아르 파리 북 역에 도착

부산을 출발하여 최종 목적지인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총 34일, 한 달 하고도 4일이 더 걸린 긴 여행이었다. 9개월 후인 1928년 3월 일본의 유명 소설가 다니 조지(谷讓次)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싣고 유 럽에 도착한 일정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여행이었 다.25) 다니 조지(谷讓次)26)는 시모노세키에서 배로 부산에 도착. 부산 에서 경성, 장춘, 안동현, 봉천 등 나혜석과 동일한 경로를 거쳐 하얼빈 에 도착,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파리에 도착하는데 2주도 소용되지 않 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나혜석이 이처럼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이 미 1달 남짓 시간이 걸린 이유는 위의 일정에서 보듯 나혜석 부부가 환 송회를 위해 대구에 머물고, 다시 경성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남편 김우 영의 부임지였던 안동현에서 또 화송회를 열고. "1주가이나 사람에게 삐치고 길에 삐친 몸을"27) 쉬기 위해 오빠 나경석이 살고 있던 봉천에

²⁵⁾ 다니 조지는 대략 2주 정도 만에 파리에 도착한다. 谷讓次,「踊る地平線」, 青空文 庫, https://www.aozora.gr.jp/cards/000272/files/4365_8008.html(2019. 7. 21.)

²⁶⁾ 다니 조지(谷讓水)는 일본 소설가, 번역가이다. 다니 조지는 필명이며 본명은 하세 가와 가이타로(長谷川海太郎)이다. 1924년에는 화물선 선원으로 남미에서 오스트 레일리아, 홍콩, 대련에 도착해서, 조선을 거쳐 일본에 귀국하였다. 이후 1928년에 는 1년간 중앙공론 특파원 자격으로 부산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 유럽으로 가 서 14개국을 방문하였다. 그 여행기를 다니 조지라는 필명으로 단행본으로 출판하 였는데 그것이 「춤추는 지평선」이다. 이후 다니 조지는 1931년 안중근의 하얼빈 거사를 다룬 희곡 「안중근」을 발표하기도 한다.

²⁷⁾ 나혜석. 「구미여행기」. 앞의 책. p.515.

서 며칠을 지내었기 때문이다.

환송회에 환송회로 이어지는 일정에서도 느껴지듯 나혜석 부부의 파리행은 당시 조선사회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²⁸⁾ 여기에는 교토제대 출신의 엘리트 관료였던 남편 김우영의 지위와 조선의 대표적 신여성으로서 조선 사회의 관심을 받아 온 나혜석의 명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진명 여학교를 우등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떠나던 십 대 후반부터 나혜석은 조선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종의 국민적 스타였던 것이다.

기차 일등석에 타서, 많은 사람들의 환송회를 받는 호화로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여성이 과연 당시 조선에서 몇 명이나 있었을까. 실제로 파리로 향하는 동안 외교관 김우영, 조선 최초의 여류화가이자 작가였던 신여성 나혜석에 대한 존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경성에서는 20여 명의 친우가 명월관에서 환송회 만찬을 열어주고, 경성을 떠날 때는 50여 명이 이들 부부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전송을 한다. 그런가 하면 하얼빈에서도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동지철도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목적지 파리에 짐을 풀고, 스위스제네바로 갔을 때는 당시 개최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 중이던일본 대표들과 만나 만찬을 즐기기도 한다.29)

그렇다고 해서 나혜석이 화려한 만찬과 환영회에 도취하여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사실주의 소설 「경희」를 쓴 작가였으며 사생기법을 익힌 뛰어난 화가였다. 물론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정치적 신분의 한계로 인해서 나혜석이 결코 포착해낼 수 없는 풍경이나 역사도 있

²⁸⁾ 나혜석, 「구미여행기」, 앞의 책, p.521.

^{29) &}quot;이때는 마침 군축회의가 있어 나는 일본 전권(全權)과 마루야마 씨 부처, 후지하라 씨 부처를 만나 기쁘게 놀고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나혜석, 앞의 책, p.530)

었다. 바로 안중근에 관한 것이다. 아래는 ① 요사노 아키코의 『파리에 서』의 하얼빈 묘사30)와 ② 나혜석의 하얼빈 묘사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나혜석과 거의 동 시기 같은 경로로 유럽에 도착한 ③일본 작가 다니 조지의 「춤추는 지평선」의 하얼빈 묘사이다.

- ① 오후 2시 하얼빈에 도착했다. 플랫폼에 일본인이 서 있었는데, 나를 마중 나온 군지 씨였다. 전보를 받았다면서 사이토씨도 기다리고 있었다. "시베리아의 경치가 마음에 들 겁니다."라고 했던 대련의 히라노 마리 씨도 와 있었다. 이토공이 저격당했다는 장소에 서서 군지 씨가 그날 눈앞에서 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31)
- ② 하얼빈은 북으로 구로(歐露: 유럽과 러시아) 및 유럽 각국으로 통하 여 세계적 교통로가 되어 있고, 남으로 장춘과 속(續)하여 남만주 철도와 연락한 곳으로 세계인의 출입이 부절(不絶)하고 러시아 혁명 이후 구파 즉 백군파가 망명되어 이리로 다수 집합하게 되었다.32)
- ③ 하얼빈, 회색으로 흐려진 신시가지의 정거장, 쇄도하는 지나(支那)의 붉은 모자. 수하물 약탈전. 량. 량. 리앙! 그럼 안녕. 호이호이! 천하, 벽돌, For God's sake, wait! 이처럼 일종의 이야기적인 울림을 가진 이 도시의 이름은 우리 일본인에게는 즉시 이토 공작의 죽음을 연상시킨다.33)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를 제외하면 나혜석의 여행기의 대부분은 사 생 기법을 익힌 뛰어난 화가로서의 치밀한 사물 포착능력을 보여준다.

³⁰⁾ 요사노 아키코의 하얼빈 묘사에 대해서는 안영희의 「제국과 식민지의 공간, 그리 고 문학 창작의 공가 바이칼,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안영희, 「제국과 식민지의 공 간. 그리고 문학 창작의 공간 바이칼, 『일본어문학』 78, 2017, pp.173-198.

³¹⁾ 與謝野寬, 與謝野晶子,「巴里より」, 青空文庫, https://www.aozora.gr.jp/cards/ 000320/files/2168 42800.html(2019, 7, 20)

³²⁾ 나혜석, 앞의 책, p.517.

³³⁾ 谷譲次、「踊る地平線」、青空文庫、https://www.aozora.gr.jp/cards/000272/files/ 4365 8008.html(2019, 7, 21.)

여기에 더하여 나혜석의 최고의 지원자였던 오빠 나경석은 일본 아나 키즘의 대부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제국과 식민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지식인이었다.³⁴⁾ 작가로서의 관심, 오빠로부터 받은 사상적 영향은 화려한 파리여행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나혜석은 제네바에 도착하여 유람선에 승선하여 낙조를 바라보면서 "아, 행복스러운 운명에 감사 아니 드릴 수 없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삶에 허덕이는 고국 동포가 불쌍하다"고 언급한다. 이와 같은 발언이 단순한 감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은 그녀가 파리에 이르는 동안 포착한 동북아시아 상황을 통해서 감지된다.

일단 나혜석은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인 만주리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갈아타면서 만난 사람들의 면면에 대해 짧게 기록한다. 이 기록 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나혜석 부부의 위치를 보여주는 한편,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일본의 면모를 드러낸다.

만주리에서부터 동행인은 이러하였다. 귀족의원 노다(惱田) 씨(남미 브라질 행), 중의원(衆議院)직원 마쓰모토(松本) 씨(제네바 군축회의 출석차), 공학사 고도(後藤) 씨(독일 시찰차), 가토(加藤) 씨 일행 9인 (흑해에있는 군함 중에 있는 금궤를 건지러 가는 길), 안도(安藤) 의학박사 부인, 이(李) 씨 부처(런던 옥스퍼드 대학 행), 너무 오랫동안 동행이 되니 모든행동이 서로 익숙하여진다.35)

³⁴⁾ 일본 유학 기간 동안 나경석은 당시 일본 사회주의 계열의 핵심인물이었던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와 교류하며 생디칼리즘에 깊이 공감해서, 실질적인 활동에도 참여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경석의 딸 나영균의 기록 한 바에 따르면 나경석은 1913年부터 오스기 사카에(大杉榮)의 사상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여 오스기 사카 에(大杉榮)를 비롯하여 일본 내 조선인 생디칼리스트들과 연대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 특히 조선인 노동자가 밀집한 오사카로 가서 조선인 노동자 의식화 교육에 관여하기도 했다고 한다(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41-50).

나혜석 부부는 만주리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일등석으로 갈아탄다. 이 열차는 '와고니 회사 만국 침대차'로 '연상차, 경상차, 식당차, 1, 2등 침대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주리에서부터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 긴 시간의 숙식을 기차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니 '모든행동이 서로 익숙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가도 가도 들판밖에 보이지 않는 지루하고도 긴 시간 여행을 함께한이들의 면면을 전하는 나혜석 기록의 방법이다. 나혜석의 기록은 건조하다. 동승한 사람들의 직업과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여행목적을 간략하게 적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면면에 대한 개인적 인상과 같은 주관적 감정은 완전하게 배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객관적 사실의 전달,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근대적 세계의 상징인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오히려 이와 같은 신문기사와 같은 사실 전달 위주의 객관적 글쓰기가 때로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나혜석이 직업과 이름 옆에 괄호를 써서 명시한 여행목적이 주는 의미가 더욱 크고, 재미있다. 제네바 군축 회담 참석차 가는 중의원, 남미 브라질로 여행을 떠나는 일본 귀족과 흑해 군함의 금궤를 건지러 가는 황당한 모험가까지,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는 일본의 힘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모인 여행객 구성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나혜석은 『구미유람기』에서 이처럼 주관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시종일관 외부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해가는 기록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기록 방법 덕분에 나혜석의 『구미유람기』는 당시 급변하고 있던 동북아시아

³⁵⁾ 나혜석. 「구미여행기」. 앞의 책. 521쪽

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부산서부터 신의주까지는 정거장마다 흰 정복에 빨간 테두리 정모 쓴 순사가 하나씩 둘씩 번쩍이는 칼을 잡고 서서 혹시나 그들의 이르는바 불령선인(不逞鮮人)이 오르내리지 않는가 해서 주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동서 장춘까지는 누런 복장에 붉은 줄 두세 오리를 띤 누런 정모를쓴 일본 만철(滿鐵) 지방 주임 순사가 피스톨 가죽 주머니를 혁대에 매어차고 서서 이것이 비록 중국 땅이나 기차 연선(沿線)이 만철 관할이란 자랑과 위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춘서 만주리(滿洲里)까지는 검은 빛 나는회색 무명을 군데군데 누벼 복장으로 입고 어깨에 다는 삼등군졸의 별표를붙이고 회색 정모를 비스듬히 쓰고 칼을 질질 끌리게 차고 곧 가슴이라도 찌를 듯이 창검을 빼들고 멍하니 휴식하고 서 있는 중국 보병이 기차가 도착할 때와 떠날 때에는 두 발을 꼭 모아 기착(氣着)을 합니다.36)

나혜석의 구미 유람 9개월 후인 1928년 3월 부산에서 열차로 유럽에 도착한 하세가와 가이타로는 『춤추는 지평선』에서 조선의 각 지방을 지나면서 "철도관사에 내걸린 일장기"를 통해 조선제국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고 있던 일본제국의 힘을 표현한 바 있다.³⁷⁾ 바로 이 이 현실을 나혜석은 『구미시찰기』에서 조선을 거쳐, 장춘, 장춘에서 만주리에 이르기까지 '순사'의 복장의 변화를 통해 감정 하나도 섞지 않은 채 냉정하게 묘사해내고 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 승리함에 따라 1905년 러시아로부터 동청철도의 남만주지선과 장춘에서 대련에 이르는 철도시설과 부속지의 경영권을 얻는다. 일본 작가 하세가와 가이타로는 조선에

³⁶⁾ 나혜석, 「구미시찰기」, 앞의 책, pp.303-304.

³⁷⁾ 谷譲次,「踊る地平線」, 青空文庫, https://www.aozora.gr.jp/cards/000272/files/4365_8008.html

서 장춘까지 일본제국 소유의 철도를 타고 일본제국의 땅을 달리면서 일본제국의 힘을 벅차게 느꼈다면, 조선인 나혜석은 조선 침략에 이어 만주를 넘어 유럽을 향하고 있던 일본제국의 무서운 힘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힘을 나혜석은 '피스톨 주머니를 차고 자랑과 위엄'을 보이고 있는 만철 지방의 일본 순사와 '군데군데 누빈 복장으로 멍하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국인 보병을 대비, 묘사하면서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저물고 있는 중국의 힘, 그 뒤로 기세등등하게 떠오르는 일본의 힘이이 글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다. 바로 그 일제의 힘에 대한 포착 이면에 있는 것이 "삶에 허덕이는 고국 동포"에 대한 슬픔으로 표현되는 가련한 식민지 조선의 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 사실 묘사를 통해 일본과 러시아, 중국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는 기록방식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주변 지역에 대한 묘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다.

- ① 하얼빈은 북으로 구로(歐露: 유럽과 러시아) 및 유럽 각국으로 통하여 세계적 교통로가 되어 있고, 남으로 장춘과 속(續)하여 남만주 철도와 연락한 곳으로 세계인의 출입이 부절(不絶)하고 러시아 혁명 이후 구파 즉백군파가 망명되어 이리로 다수 집합하게 되었다.³⁸⁾
- ② 시베리아 아전(雅典)이라고 하는 타이가를 지나 정치 경제 중심지인 노보시비르스크를 떠나 옴스크에 도착하였다. 이 부근에는 쓰러진 소옥(小屋)과 차륜(車輪)이 많이 있어 혁명 당시 참극(慘劇)의 적(跡)을 볼수 있다.39)

³⁸⁾ 나혜석, 「구미여행기」, 앞의 책, p.517.

³⁹⁾ 나혜석, 「구미여행기」, 앞의 책, p.522.

익히 알려져 있듯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적군과 백군이 서로 충돌하는 시베리아 내전이 일어난다. 이에 일본을 비롯한 영국, 미국등 서구 열강은 러시아에서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고 이 과정에서 시베리아와 서유럽을 잇는 철도도 폐쇄된다. 러시아 내부 상황 및 국제적 여론에 따라 미국과 영국이 철병하고, 1922년 일본역시 2년을 버티다가 철병을 하면서 시베리아 내전도 마무리된다. 이후, 1927년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서유럽 간의 철도를 다시 개시한다. 나혜석은 시베리아 내전으로 인해 폐쇄되었다가 재개된 바로 그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달려간 것이다.

나혜석이 여행하던 시기 동북아시아는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러시아 내전, 일본의 블라디보스토크 파병과 철병으로 이어지던 복잡한 정치적 흐름을 겪고 있었다. 이 다변하는 정세를 나혜석은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다양한 풍경 속에서 포착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동 북아시아의 정세가 요동을 치기 전에 하얼빈을 지나 유럽으로 갔던 요 사노 아키코는 물론 나혜석과 동시기 같은 경로를 통해서 유럽에 도착 했던 다니 조지도 포착해내지 못한 것이었다. 이것은 우울한 식민지의 현실 속에 놓여있던 예민한 지성의 소유자이자, 사실주의 기법을 몸에 익힌 화가 나혜석만이 포착 가능한 것이었다.

V. 나오는 말

나혜석은 남존여비의 유교 이데올로기와 '文'의 의식이 여전히 강했던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그리고 신여성에 대한 극심한 편견, 비난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한 사람의 작가로서 혹은 화가로서 자신의 삶의 영

역을 구축해간 인물이었다. 여기에는 요사노 아키코로 상징되는 다이쇼 시기 일본의 문화적 흐름이 있었다. 나혜석은 '모성'과 더불어, 유럽 여 행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요사노 아키코, 넓게는 다이쇼 시기 일본문화 와 자신의 삶을 연결해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하나의 분석 관점 으로 삼아서. 나혜석의 구미 여행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의 신여성이자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이중의 굴레에 잡힌 나혜석 의식의 특징과 한계 를 고찰하였다.

나혜석의 삶은 그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찬탄과 존중에 의해 채워 지고 있었다. 물론 나혜석 역시 전근대적이며, 보수적 조선 사회에서 여 성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몫이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그 몫이라는 것이 여타 여성들에 비해 과다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나혜석에게서는 이런 삶에서 결과된 극도의 자기 중심성이 분명히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도의 자기 중심성이 한편으로는 나혜 석이 예술가로서의 자기 세계를 구축의 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던 것으 로 파악된다. 아울러 나혜석은 예술가로서의 자기 세계 구축에 힘입어 외부세계를 '사실적'으로 포착해내었다. 『구미여행기』는 바로 그와 같 은 나혜석 예술세계가 글로써 드러난 하나의 단적인 증거였다.

나혜석의 롤 모델이었던 요사노 아키코는 요사노 뎃칸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의 처녀작 흐트러진 머 리카락,은 근대적 자아에 눈뜬 새로운 여성의 목소리를 대답하고 분방 하게 표현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담대하고 과감한 표현을 사용한 이 작품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봉건적 관습을 타파하지 못했던 당시에 큰 반향을 불러있으켰다. 그녀는 낭만주의 문예지 "묘조" 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 문학사상 '정열의 가인'으로 기록된다. 1912년 남편의 뒤를 따라서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된다. 자신의 힘으로 어렵게

여행비를 마련하고 시누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4개월간 파리 여행을 하게 된다. 귀국하고 2년 뒤에 남편과 함께 쓴 『파리에서』에는 여성의 섬세한 감정이 드러나 있지만 짧은 파리 여행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새로운 글쓰기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12년 뎃칸과 함께한 유럽여행 이후에는 여권 신장 운동 체험을 바탕으로 넓은 사회적 시야를 갖고 부인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말년에는 초기의 격정적인 어조는 퇴색되었으나 낭만적 미질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차내면적인 깊이를 더해 고요한 자기 관조와 사색적 서정을 내포해 가게되었다. 제국의 여성 요사노 아키코는 평생 문단 활동을 하였으며 일본여성에게는 물론 나혜석에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할 수 있다.

나혜석은 요사노 아키코가 파리를 여행한 1년 뒤에 도쿄에 도착했다. 당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요사노 아키코는 그녀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요사노 아키코의 자유연애와 그녀의 작품세계는 그녀를 압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요사노 아키코는 파리 여행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반면 나혜석은 1년 8개월동안 부족함이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최린과의 연애사건에까지휘말렸다. 이러한 나혜석의 기존 여성의 삶의 틀에서 벗어난 자기 중심성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경험은 자아 발견으로 이어졌다. 나혜석의 자기 중심성은 기존의 가부장적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모습으로 발현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그녀의 예술세계와 사실의 기록과 사생의 기법이라는 새로운 글쓰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쉽게도 조선에서는 그녀의 삶과 예술세계를 인정하지 못했고 파리에서 최린과의 연애 사건으로 그녀는 이혼을 당했으며 조선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격동의 시대

를 살았던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두 신여성, 제국의 신여성 요사노 아키 코는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하 지만 식민지의 신여성 나혜석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가부장제에 벗어나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나혜석저・이상경편、『나혜석 전집』、태학사、2000

奥謝野寬・與謝野晶子,「巴里より」, 青空文庫, https://www.aozora.gr.jp/cards/000320/files/2168 42800.html

〈참고자료〉

김우영 엮음, 『김일엽 선집』, 현대문학사, 2012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요사노 아키코, 박지영 옮김, 『흐트러진 머리카락』,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이상경, 「새로 찾은 나혜석의 글」, 『나혜석 연구』 5, 2014.

이상경, 「기억과 기록 사이에서 나혜석 말하기」, 『나혜석 연구』 9, 2016.

맹문재 엮음, 『김명순 전집』, 현대문학사, 2009.

송명희, 「나혜석과 요사노 아키코의 모성이데올로기 비판과 여성적 글쓰기」, 『인문사회과학연구』 17, 2016, pp.219-252.

谷讓次,「踊る地平線」, 青空文庫, https://www.aozora.gr.jp/cards/000272/files/4365_ 8008 html (검색일:2020 10 20)

金子幸代、『鷗外と「女性」』、大東出版社、1992.

女子私立美術大學歷史資料室,『女子美術教育と日本の 近代』, 學校法人私立美術 大學

外務省外交史料館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新版 日本外交史辭典』, 1992.

Abstract

Na Hye-sok's 'Trip to Europe and America' and a New Style of Writing

An, Young-hee · Jung, Hye-young

During the colonial Joseon period, where the general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was strong due to Confucian ideology and there still existed a strong sense of Mun (文), modern women often experienced extreme prejudice and accusations. Na Hye-sok, however, had built up her own successful career as a writer and a painter who was equal to the men in her fields. A detailed examination of this process reveals on one hand, the realities of the lives that modern Joseon women l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the reality of the modernity experienced by the general population living in colonial Joseon society. On the other hand, this analysis also reveals the process which an individual goes through in order to gain dignity during the fight against prejudice and accusations. During this process,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Parisian experience of Akiko Yosano, a modern Japanese woman, is essential. Na Hye-sok and Akiko Yosano are both representatives of the first generation of modern women in Joseon and Japan, and have published numerous works as writers. Both of them had rarely stayed in Paris as modern women during that time. Additionally, it is also important to set Akiko Yosano as a comparative subject in order to more critically examine the significant role of Nae Hye-sok during the colonial Joseon time period, as Na Hye-sok refers to Akiko Yosano, who was also actively involved in writing articles and poetry, as her role model. Based on this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circumstances and significance of Joseon modern women, as symbolized by Na Hye-sok, by focusing specifically of her experience traveling in Europe and America.

112 韓民族語文學 第91輯

Key Words: New woman, Colony, Empire, Na Hye-sok, Akiko Yosano, *Trip to Europe and America*

주저자 및 교신저자

안영희

소속: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조교수

전자우편: anyounghee21@kmu.ac.kr

공동저자 정혜영

소속: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초빙교수 전자우편: jhy2109@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1월 29일 투고되어 2021년 3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3월 26일 게재 확정됨.